

중국 학생의 한국어 聽取難에 대한 분석

장광근*

1. 들어가는 말

어떤 외국어를 공부하든지 간에 聽取, 會話, 읽기, 쓰기, 翻譯하기 등 5가지 어학실력 기능을 양성하여야 한다. 한국어 공부도 例外가 아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이 5가지 기능의 양성을 목표로 하여 여러 가지 과목을 설치하였고 그에 맞는 연습도 많이 시켰다. 그런데 教授過程에서 우리는 학생의 5가지 기능이 投入된 시간, 精力과 같은 비율로 향상되는 것이 아니며 많은 差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청취와 읽기 기능 양성에서 투입과 產出이 완전히 대조적이다. 한국인도 아주 어렵다고 생각하는 글은 줄줄 읽어 내려가면서 그 내용도 정확히 파악하는 반면, 한국인이 쉽다고 생각하는 청취 자료는 끄끖거리면서 제대로 받아쓰지도 못하고 그 내용을 잘 把握하지도 못하는 일이 종종 있다.

우리는 한국어를 전공하는 중국 학생을 상대로 5가지 기능 양성의 難易度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결국은 난이도에 따라 회화, 청취, 쓰

* 중국 낙양외국어학원

기, 번역하기, 읽기 順의 결과가 나왔다.

회화와 쓰기는 外國語로 제 뜻을 표현하는 말 만들기이므로 외국어를 아직 많이 배우지 못한 학생으로서 어려워할 수 있다. 그런데 청취와 읽기는 외국어로 이미 만들어진 言語資料를 이해하는 것인데 왜 難易度 조사에서 聽取는 두 번째로 어렵고 읽기는 가장 쉬운 것이 된 것인가?

대학 한국어 교육은 고급 한국어 人才 養成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5가지 기능을 兼備하여야 하는데 4년 동안 배워 가지고 ‘병어리 韓國語’나 ‘귀머거리 韓國語’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글에서는 중국 학생의 한국어 聽取難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分析하고자 한다.

2. 구체적 분석

중국 학생의 한국어 청취를 분석하려면 먼저 한국어를 배울 때의 중국 학생의 特性을 알아야 한다. 중국인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자신만의 獨特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

중국어와 한국어는 문법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중국어는 孤立語이고 語順에 의하여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반면에 한국어는 膠着語이고 어휘 뒤에 문법적 요소¹⁾를 붙임으로써 각 어휘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고립어를 母語로 하는 중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어휘 뒤에 붙는 이 문법 요소가 難點이 된다.

1) 한국어의 문법적 형태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조사’와 ‘어미’로 나누고 조선에서는 일률적으로 ‘토’라고 부르며 중국에서는 일률적으로 ‘사미(詞尾)’라고 부른다. 서술상의 편의를 위해 필자는 이 글에서 일단 ‘문법적 요소’라고 부르기로 한다.

한국어 어휘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比率은 69.32%나 된다고 한다.²⁾ 이러한 한자어의 相當한 부분은 그 書寫形態나 의미가 현대 중국어와 비슷하다. 그리고 차이가 있는 것이라도 조금 신경을 쓰면 쉽게 習得할 수 있고, 특히 글을 읽을 때는 모르는 한자어라도 글의 全體 흐름에서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는 어휘 습득이 別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국어가 교착어이며 어휘 구성에 한자어가 많다는 特性은 日本語와 같다. 그리하여 중국 각 대학 韓國語學科에서 5가지 기능의 成績指標를 대체로 일본어와 같게 한다. 우리 대학 한국어 청취 과목의 성적지표는 1분 동안의 외국방송(주로 KBS 뉴스방송)을 20분 동안 받아쓰고 그 錯誤率이 10%를 超過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일본어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일본어 전공 학생들이 이런 성적지표에 거의 다 到達할 수 있는데 비해 한국어 전공 학생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났는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학생들도 우리 선생들도 이 문제로 오랫동안 苦悶하였다. 그 원인을 찾아내야 해결 방법을 얻어낼 수 있다.

중국 학생의 한국어 聽取難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것들을 크게는 言語的 原因과 非言語的 原因으로 나눌 수 있다.

1) 언어적 원인

언어적 원인이란 한국어 自體의 언어적 특성에 의하여 조성된 원인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한국어는 외국어로서 중국어와 서로 다른 一連의 특성

2) 이희승이 편찬한 『국어대사전』에 의한 통계.

이 있는데 이들이 중국 학생의 聽取難에 원인이 될 수 있다.

(1) 語音에 의하여 조성된 것

① 한국어의 音素와 音節이 많다.

한국어는 음소문자다. 현대 한국어는 19개의 자음과 21개의 모음, 그리고 27개의 받침(자음 받침 14개, 雙子音 받침 2개, 겹자음 받침은 11개)이 있다. 한국어의 音節數는 代表 받침을 7개(ㄱ, ㄴ, ㄷ, ㄹ, ㅁ, ㅂ, ㅇ)로 잡으면 理論的으로 3,193개 음절³⁾을 産出할 수 있다. 중국어는 22개 子音과 38개 韻母가 있지만 이것들은 이론적으로 836개 음절을 構成할 수 있고 實際的으로 460여 개 음절만 사용한다. 일본어는 이론적으로도 582개⁴⁾ 음절밖에 안 된다.

한, 중, 일 언어의 음절수를 對照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음절수	3,193	836	582
-----	-------	-----	-----

韓國語, 中國語, 日本語의 音節數 對照

3) 한국어 음절의 수효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다. 19(자음의 수)×21(모음의 수)×7(대표받침의 수)+309(받침 없는 음절의 수)=3,193.
 4) 일본어는 음절이 112개라는 설이 있지만 실제 발음 음절은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청음(淸音)은 44개, 탁음(濁音)과 반탁음은 23개, 요음(拗音)은 30개, 그리고 매개 음절은 다 장단음(長短音)이 있고 그 외에는 한국어의 받침에 해당하는 촉음(促音)과 발음(撥音)은 하나씩 있다. 그리하여 [(44 <청음>+23 <탁음과 반탁음>+30 <요음>)×2 <촉음과 발음>+97 <촉음과 발음이 없는 음절>]×2 <장음과 단음> = 582다.

음소와 음절이 많은 경우에 音聲을 정확히 判斷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한층 어렵다.

② 한국어의 받침이 많다.

한국어가 閉音節 언어⁵⁾이고 일본어가 開音節 언어라는 것은 이미 定說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폐음절과 개음절이라는 것은 다만 이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청취와 회화에 많은 影響을 준다.

한국어에는 27개 받침이 있는데 이런 받침들이 言語行爲에서 많이 變化된다. 連音도 있고 脫落도 있으며 同化도 있고 절음 變化도 있다. 그런데 일본어에는 한국어의 받침에 해당하는 것이 2개밖에 없는데 연음, 탈락, 절음 變化 등이 전혀 없다.

받침은 회화에 영향을 준다. 같은 2학년 학생의 경우 일본어 전공 학생은 流暢하게 본문을 읽을 수 있으나 한국어 전공 학생은 그렇지 못하다.

받침은 청취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 뒤에서 다시 論述하겠지만 받침에 의한 어음의 변화가 청취에서의 의미 판단에 隘路가 된다.

(2) 語音變化에 의하여 조성된 것

① 한국어에는 同音異綴 현상이 많다.

동음이철이란 발음이 같지만 書寫標記가 다른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런 현상은 읽거나 쓰기에 별로 지장이 없지만 청취와 회화에서 그렇지 않다. 우리 학생들은 주로 교과서, 그것도 주로 書面을 통하여 말을 배우며 소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문자를 통해서 먼저 한국어를 접한다. 따라서

5) 자음으로 끝난 음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언어는 폐음절 언어이고 그것과 상반되는 것은 개음절 언어다. 최윤갑·이세룡(1984:142)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어의 폐음절은 총 음절에서 약 80%나 된다고 한다.

기억한 형태와 들은 음성이 다를 때 唐惶하게 된다. 한국어에는 동음이철 현상이 많아서 그것은 聽取難의 원인이 된다.

한국어의 동음이철 현상은 靜적인 것과 動적인 것의 두 가지로 나뉘어 지게 된다.

정적인 동음이철 현상은 한국어의 음절과 글자의 수의 불일치에서 생긴 것이다.

한국어의 음절 구성은 3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1. 단일모음으로 구성된 것. 2. 자음+모음으로 구성된 것. 3. 자음+모음+자음으로 구성된 것 등이다. 따라서 주3의 방법에 의하여 이론적으로 3,193개 음절을 산출하게 된다.

한국어를 쓸 때 그 자모를 라틴 자모처럼 線的 상태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모를 네모난 한자처럼 하나하나의 글자로 모아쓴다. 글자의 구성은 4가지 상황이 있는데 1. 자음부호 'ㅇ'+모음부호가 구성된 것. ('ㅇ'이 발음되지 않는다.) 2. 자음부호+모음부호로 구성된 것. 3. 자음부호+모음부호+자음부호로 구성된 것. 4. 자음부호+모음부호+2개 자음부호로 구성된 것 등이다.

한국어 음절 구성과 글자 구성을 대조하여 보면 1, 2, 3은 같은데 다른 것은 글자 구성 상황의 4인 경우에 2개 자음부호가 하나의 음으로 발음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음절과 글자의 불일치가 조성되었다. 현대 한국어의 글자 總數는 이론적으로 11,172개로 산출할 수 있다.⁶⁾ 이렇게 많은 글자가 3,193개 음절과 대응하니 同音異綴이 많다는 상황을 알 수 있다. 물론 現在 쓰이고 있는 글자의 총수는 1,832자이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음절은 1,409개⁷⁾인데 그래도 1.3 : 1의 比率로 423자가 동음이철로 된다.

6) 그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다. 19(자음)×21(모음)×[14(자음 받침)+2(쌍 자음 받침)+11(겹자음 받침)]+309(받침 없는 글자)=11,172

7) 이것은 필자가 원광호의 계산에서 다시 조사·분석한 데서 나온 결과다. 현재 쓰이

動적인 동음이철 현상은 어음통합에서의 음소의 변화에 의한 것인데 구체적 실례는 다음의 ②, ③에서 보기로 한다.

② 한자어의 연음이나 語音變格이 많다.

중국 학생이 한국어를 배울 때 중국으로부터 차용한 한자어가 이로운 것이 된다. 한자의 讀音규칙을 파악하면, 배우지 못한 한자어도 한자로 還元하기만 하면 그 뜻을 쉽게 이해하게 된다. 그런데 그것은 단어 기억과 讀解에 도움이 되지만 회화와 청취에서 난점이 될 수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한국어는 음소문자이지만 쓸 때 한자와 비슷한 네모 글자를 구성한다. 중국 학생이 중국어 단어를 기억할 때 音素單位가 아니라 音節單位, 더 정확히 말하면 글자단위로 기억하는 버릇이 있다. 그리하여 이와 비슷한 음절단위로 쓰는 한국어를 배울 때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한다. 가령 ‘불합리(不合理)’라는 단어를 배울 때 ‘불’, ‘합’, ‘리’ 등 3개 글자로 나누고 ‘不’, ‘합’, ‘리’ 등 3개 한자와 결부시켜 이해한다. 이런 경우에 기억하기도 그 뜻을 이해하기도 쉽다. 그런데 이 단어를 음성으로 接할 때 연음과 어음변격의 영향 때문에 그것이 ‘부람니’로 되는데 形態대로 기억한 글자와 完全히 다르게 되어 그 뜻도 알른 判斷하기 어렵게 된다.

固有語도 연음이나 어음변격 현상이 있지만 적어도 單一語에서는 이런 현상이 없다. 그러나 한자어는 한자를 단위로 하여 音節을 구성하기 때문에 단일어에서도 이런 현상이 아주 많다. 이를테면

연음 현상: 거머기 ← 검역의(檢疫醫) 가머니설 ← 감언이설(甘言利說)
 사미루 ← 삼일우(三日雨) 구가그막 ← 국악음악(國樂音樂)
 자가과 ← 작약화(芍藥花) 화노자각 ← 환호작약(歡呼雀躍)

고 있는 글자의 총수는 원광호(1991)에 의하면 1,832자다.

이상의 한자어를 발음대로 쓰면 뭐가 뭔지 통 알 수 없게 된다.

어음 변경 : 잉명 ← 익명(匿名)
 삼목 ← 삽목(插木)
 살략 ← 산략(刪略)

이상의 한자어도 原型 그대로 쓰면 금방 그 뜻을 알 수 있지만 발음대로 쓰면 판단하기 어렵다.

③ 고유어에서 語音變格이 많다.

한자어에서 연음이나 어음변격이 많지만 고유어에서 歷史的 原因으로 조성된 어음변격이 또한 많다. 이런 어음변화가 청취에 影響을 준다. 이를테면

르변격

칼을 갈다 —

- | | |
|------------------------|----------|
| ○ 할아버지가 가니 손자도 갈려고 한다. | 칼을 가니 |
| ○ 이것은 간 것이요 | 간 칼. |
| ○ 조급해하지 마시오, 지금 갑니다. | 칼을 갑니다. |
| ○ 할아버지가 지금 가십니다. | 칼을 가십니다. |
| ○ 누가 가오? | 칼을 가오 |

이상의 例에서 앞의 것만 들으면 正確히 이해하기 어렵다.

고유어에는 용언語幹변격이 9가지나 있는데 이들 규칙을 잘 파악하지 못한 학생이 청취에서 正確히 판단하지 못할 수 있다.

(3) 어휘에 의하여 造成된 것

한국어 단어의 음절이 적다.

李熙昇이 편찬한 『民衆국어사전』에 대한 통계(朱英月, 2000:64)에 의하면 한자어는 음절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포되어 있다.

1음절어	1,777	1.8
2음절어	57,825	56.9
3음절어	21,630	21.2
4음절어	16,847	16.6
5음절어	3,583	3.5
도합	101,617	100

민중 國語辭典 한자어 음절 統計表

이상의 圖表를 통하여 한자어 2음절 以下の 단어가 58.7%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유어 어휘에 대한 구체적 統計가 없지만 한자어가 한국어 어휘에서 69.32%나 차지하는 것을 보면 한국어 단어의 음절이 적다는 것을 立證하고도 남음이 있다.

단어가 짧으면 같은 시간 동안의 音聲資料에는 그만큼 단어가 많으며 따라서 情報量이 많고 변화가 많다. 그럴 경우에 청취에도 난도가 높아진다.

(4) 문법에 의하여 조성된 것

① 한국어는 문법형태가 많다.

앞에서도 서술되었지만 한국어는 膠着語이고 어휘 뒤에 문법적 요소

를 붙임으로써 각 어휘간의 關係를 나타낸다. 그런데 한국어는 같은 교착어인 일본어보다 문법적 요소의 數가 더 많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어의 문법적 요소가 변이형태까지 포함하면 1,372개나 된다고 한다.⁸⁾ 그리고 非但 총 수효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細分용법도 많고 의미가 近似한 것들도 많다. 이렇게 많은 문법적 요소가 필요에 따라 언어자료에 수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것들의 어음, 형태, 의미, 配合關係 등을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② 한국어는 SOV형 즉 述語後置型의 언어다.

중국어는 SVO형의 언어이지만 한국어는 SOV형의 언어다. 술어가 문장 全體를 지배한다는 것이 이미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여 證明되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언어교제에서 문장 전체의 의미를 판단할 때 술어에 많이 의거한다. 그런데 중국어의 述語는 말의 앞부분에 있는데, 이에 익숙해진 중국 학생들은 한국어를 들을 때 문장에 술어가 나타나기 전에 는 문장 전체의 뜻을 파악하지 못한다. 이를테면,

○ 我看中國四大古典名著之一《紅樓夢》。

(나는 중국 4대 고전명작의 하나인 『홍루몽』을 읽는다.)

이 두 말은 같은 뜻이다. 그런데 중국어를 들을 때 두 번째 음절인 ‘看(보다)’자까지 나오면 뒤에 나오는 말이 눈의 동작과 관련된 대상이라는 것을 豫測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어를 들을 때 ‘홍루몽’까지 즉 18번째 음절이 나와도 그것을 사려고 하는지 보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빌리

8) 문법적 형태의 확립기준이 다름에 따라 통계 숫자도 서로 다르다. 이 글에서 사용한 숫자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편찬한 『한국어 형태소 및 어휘 사용빈도의 분석』에 의한 것이다.

려고 하는지 判斷하지 못한다. 한국인이면 그런 思惟方式에 익숙해져서 앞의 말을 들어 두었다가 뒤늦게 나온 용언과 결부시켜 의미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生疎한 중국 학생이 오래 기다려도 술어가 나오지 않으면 당황하게 된다.

한국어 술어의 位置도 청취에 장애가 된다.

(5) 말의 速度에 의하여 조성된 것

현대 한국어의 말하는 속도가 빠르다.

‘우물에서 솥을 찾는다’는 俗談이 보여주듯이 한국인이 性味가 급한 것으로 소문이 났다. 성미가 급한 사람이 말을 느릿느릿 할 리 없다. 게다가 經濟가 발전함에 따라 한국인의 생활 템포가 이전보다 훨씬 더 빨라졌는데 이런 生活모습이 언어에 반영되어 한국어의 말하는 속도도 많이 빨라졌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세계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언어는 프랑스어라고 하는데 1분 동안 380개 음절을 발음한다고 한다. 그런데 KBS방송 뉴스프로그램에 대한 필자의 調査에 의하면 여성 아나운서가 늘 1분 동안 370~390개 음절을 발음하였다. 日氣豫報를 할 때는 더 빠르다. 이렇게 빨리 말하는 말은 비단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알아듣기 어려울 뿐 아니라 중국에 사는 母語 使用者도 어렵다고들 한다.

말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대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2, 3학년 때 학생의 水準에 맞게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은 자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너무 빨라 알아듣지 못하면 학생이 興趣를 잃고 자신감을 잃는다. 그리하여 선생들이 특별히 神經을 써서 쉬운 것으로 골라서 청취 교재로 사용하여야 한다. 배운 지식이 많아짐에 따라 漸次적으로 난도를 높이면 된다.

이상에서 여러 側面으로 분석하였듯이 한국어가 어렵다는 것은 事實

이다. 그러나 우리가 청취가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요소가 적어지는 것도 아니고 쉬워지는 것도 아니다. 이것을 打開하는 방법은 한국어의 이런 실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對策을 세우는 것이다. 이를테면 음절이 많은 현실에 대하여 실제로 사용하는 음절,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음절을 조사하여 연습시켜야 한다. 앞에서도 서술하였지만 현대 한국어에서 실제로 발음하는 음절은 1,409개다. 그리하여 학생들에게 발음 연습을 시킬 때, 組合할 가능성이 있는 3,193개 음절을 一律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1,409개 음절만 연습시키고 그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을 重點적으로 연습시켜야 한다. 그리고 청취가 어렵다고 해서 청취 연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發音 연습도 많이 하고 회화 연습도 하여야 한다. 어음을 정확히 발음하여야 머리에 정확한 印象이 남게 되고 새 情報를 접할 때 정확히 들어맞게 된다.

2) 비언어적 원인

비언어적 원인이란 한국어 자체의 特性 외의 다른 특성에 의하여 조성된 원인을 두고 하는 말이다.

(1) 한국의 문화를 잘 모른다.

중국과 한국은 같은 東方國家이고 문화와 풍습도 비슷한 것이 많다. 그리하여 문화에서 동서방의 차이보다 그 차이점이 훨씬 적다. 그렇지만 畢竟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므로 문화에 있어서 같은 것보다 역시 다른 것이 많다. 음성자료에 반영된 이런 문화적 차이는 청취에서 어려운 것이 된다.

이를테면 '언제 국수를 먹겠는가'라는 말을 듣고 '結婚式을 올리다'는

深層의미를 모르면 전체 문장, 심지어 한 段落의 말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하여 청취 수업에서도 그렇지만 한국어의 다른 授業에서 어학지식과 결부시켜 한국의 현대문화를 가르쳐주어야 한다.

(2)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事件을 잘 모른다.

한국어 전공 학생들은 중국의 一般人보다 한국의 事情을 잘 알고 잘 이해한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의 제약으로 하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을 잘 모를 수 있다. 언어는 사회적 발전을 민감하게 반영하는데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關聯하여 새로운 말들도 많이 생긴다. 이런 사건과 새 말을 모르는 학생들은 청취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

이러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조선을 방문할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그 중 '비전향 장기수'라는 말이 나왔다. 음절 조성 規則을 보면 분명히 한자어인데 그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것이 바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事件을 잘 모르는 데서 생긴 것이다.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 마치 컴퓨터가 하드디스크에서 정보를 檢索하는 것처럼 머리에서 舊情報를 檢索한다. 이미 가지고 있던 구 정보에 들어맞으면 새 정보를 빨리 이해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해 못한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요해하는 것은 마치 머리 속의 하드디스크에 새 정보를 저장하는 것과 같은데, 청취에서 머리의 하드디스크에 이미 있는 정보를 듣게 되면 빨리 이해하게 된다. 그리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한국신문을 많이 보고 한국에 관한 지식을 많이 요해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3) 한국어의 어음, 억양에 잘 適應되지 않는다.

중국에는 근 200만⁹⁾의 조선족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의 언어를 保有하고 또 널리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역사적 조건으로 하여 중국 조선족이 사용하는 언어는 거의 조선의 言語規範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조선의 영향이 자못 크다. 그리고 중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언어는 중국 現地の 영향도 여러 면으로 많이 받았다. 한국어학과의 중국인 教授陣에서 80% 정도가 조선족(김중식, 2000)이라는 것을 勘案할 때 중국 조선족의 언어가 한국어 교육에 影響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수진 중의 漢族 선생들도 대부분이 조선에서 공부하고 平壤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중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많은 선생들의 어음과 抑揚이 한국의 그것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어음과 억양에 익숙해진 학생들은 한국의 음성자료를 접할 때 生疎感을 느낄 수 있고 당황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길은 한국 放送을 많이 듣는 것이다. 많이 들어야 귀에 익게 되고 적응하게 된다. 그리고 들으면서 意識적으로 모방하여야 한다. 한국어의 어음, 억양을 비슷하게 발음할 때 그 어음, 억양도 자연히 귀에 適應하게 된다.

(4) 방송을 통한 청취는 對話環境이 없다.

방송을 통한 청취는 영상화면이 없기 때문에 聽覺 기능만 동원하고 視覺 기능을 방치하게 된다. 영상배경이 없는 條件에서 청취의 난도가 높아진다.

9) 1990년 중국 제4차 인구조사에 따르면 조선족 인구는 1,920,597명이다(전학석, 2000).

일상생활에서 話者가 하는 말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 문법에 맞는 것이 아니며, 聽者들을 조사해 보면 한 글자도 빠짐없이 100% 알아듣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省略도 많이 한다. 그런데도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은 사건에 관한 배경이 있고 言語環境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실험을 하여 보았는데 한국 텔레비전에서 錄畫한 것을 2개 조의 학생들에게 듣게 하였다. 제1조는 화면도 보여주고 소리도 들려주었지만, 제2조는 소리만 들려주었다. 그런데 제1조는 80%를 알아들었고 제2조는 65%를 알아들었다는 差異가 나왔다. 그만큼 언어환경이 重要的 것이다.

(5) 청취 方法이 정확하지 않다.

일부 학생은 청취자료를 단어나 어미, 조사에 의하여 有機的으로 구성된 統一體로 보지 않고 하나 하나의 孤立的인 언어단위로 본다. 그리하여 청취에서 음성자료의 全體 흐름을 통하여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音聲學的인 方法으로 소리를 辨別하고 받아쓴다. 이런 경우에 話者 어음의 個人的인 차이, 라디오나 錄音機 등의 기계 소음 등은 청취의 정확도를 低下시킨다.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하드디스크에서 정보를 검색할 때 디렉토리를 지정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範圍에서 검색하게 되고 빨리 찾아내게 된다. 청취자료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것도 같은 이치다. 청취자료를 하나의 통일체로 보고 먼저 한 번 들으면, 마치 디렉토리를 지정하는 것과 같이 머리가 자동적으로 작은 범위에서 이와 상관된 정보를 동원시켜 빨리 정확한 판단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청취를 할 때 音聲資料를 접하자마자 서둘러 한 마디 한 마디 들으면서 받아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번 들어야 한다. 그래야 이 자료가 大體로 어떤 일을 둘러싸고 서술하는 것인지 파

악하게 되고 자기 머리 속에 디렉토리를 指定하게 된다. 그러면 검색 속도도 빨라진다.

그리고 어떤 말이 자료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데 앞에서 알아듣지 못하지만 뒤 부분에서는 알아듣게 될 수 있다. 그러면 뒤의 것에 根據하여 앞의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6) 선생의 교수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선생이 청취수업을 할 때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教授法을 적절히 조절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청취자료가 아주 어려울 때 먼저 答案을 학생들에게 내주고 읽게 하는 것이 좋다. 먼저 읽고 내용을 다 파악한 다음 들으면 容易하게 알아듣는다. 그리고 자료가 比較的 어려울 때 답안을 먼저 학생들에게 내주고 들으면서 모를 것이 있으면 답안과 對照하게 할 수 있다. 자료가 그다지 어렵지 않을 때 다 들은 다음 답안을 내주는 것이 좋다. 이상의 방식을 한 마디로 말하면 어려운 것은 읽고 듣기, 中等 난도는 읽으면서 듣기, 쉬운 것은 듣고 읽기,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練習시키면 학생의 청취난도 풀리게 될 것이다.

3. 맺는 말

이상에서 한국어의 청취에 대하여 언어적 원인과 비언어적 원인의 2개 側面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어의 청취가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것은 청력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청취만 관계되는 것도 아니다.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하여 조성된 것이다. 大體로 한국어의 다른 과목을 잘 하는 학생은 聽取成績도 좋고 그렇지 못한 학

생이 청취성적도 나쁘다. 청취는 한국어 실력 전반의 綜合的 반영이다. 청취 문제를 圓滿히 해결하려면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다.

참고 문헌

- 金宗植,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원 연구에 대하여」,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태학사, 2000.
- 김흥규·강범모, 『한국어 형태소 및 어휘 사용 빈도의 분석』,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0.
- 元光浩, 『이것은 한글이다』, 바른사, 1991.
- 李熙昇, 『민중국어사전』(제4판), 민중서림, 1998.
- 張光軍, 「종합한국어 교수법」,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태학사, 2000.
- 全學錫, 『중국조선족 언어문자 교육 사용 상황 연구』, 연변대학출판사, 2000.
- 朱英月, 「중한 한자 응용 비교 연구」, 산동대학 박사학위논문, 2000.
- 崔允甲·李世龍, 『조선어학사전』, 연변인민출판사, 1984.

■ 中文提要

對中國學生韓國語聽力難易度之分析

張光軍

學習外語要掌握聽, 說, 讀, 寫, 譯五項技能. 學習韓國語的中國學生為提高這些技能投入的時間和精力與其效果不成正比. 韓國人認為容易的聽力材料, 中國學生往往感到很難.

中國學生韓國語聽力難的原因, 分為語言類原因和非語言類原因兩大類.

語言類原因包括語音, 音變, 詞匯, 語法, 語速等5个方面.

韓國音素和音節的數量多於漢語和日語. 音素和音節多, 依靠聽力判斷時難度就大.

韓國同音異綴現象多. 中國學生主要通過書本學習韓國語, 首先接觸文字而不是聲音. 聽到的語音與記憶的書寫形態不一致時, 就會感到茫然. 漢字詞的連音和音變多. 中國學生記憶漢語單詞, 以字為記憶單位, 並已形成思維定勢. 在記憶與漢字相似的以字節為單位書寫的韓國語詞匯時, 也採用同類方法. 而漢字詞在語音材料中, 往往與按照書寫形態記憶的音節不同, 因此難以快速準確判斷其意義. 固有詞謂詞詞干的音變達 9 種之多, 未能正確掌握這些規律的學生, 在聽力中難免失誤.

韓國單詞的音節少, 因此相同聲音資料中容納的單詞就多. 單詞多, 信息量大, 變化多, 聽力的難度相應提高.

韓國語法形態數量多, 要判斷它們的語音, 形態, 語義, 組合關係等, 不是一件容易的事. 韓國語是 SOV 型——謂語後置型語言. 不熟悉這一思維方式的中國學生, 在語言交際中遲遲不見謂語出現時, 難免感到心里沒底.

現代韓國語的語速快, 不僅學習韓國語的漢族學生難以聽懂, 就連在中國生活

的朝鮮族有時也感到困難。

非語言類原因包括不熟悉韓國文化，不了解韓國發生的事情，不適應韓語的語音語調，聽廣播沒有語言環境，聽抄方法不正確等方面。

中韓是不同國家不同民族，文化上存在許多差異。反映在語言資料中的文化成爲聽力難點。

語言快速敏感地反映社會發展。與每日發生的事件相關，不斷產生新詞語。不了解這些事件和新詞語的學生，在聽力中會感到困難。

中國各大學韓語專業教師中，朝鮮族占80%左右，其他漢族學者大部分也曾在朝鮮學習，許多教師的語音語調與韓國有一定差別。熟悉此類語音語調的學生在接觸韓國人的韓語時，會感到緊張和不適應。

聽廣播沒有影像畫面，僅僅啓動聽覺機能而沒有調動視覺機能。在沒有影像背景的情況下，聽力的難度提高。

有的學生將聽力資料視爲孤立的語言單位，單純從語音學的角度辨別聲音。這時說話人個人的語音差異，收音機和錄音機的機械雜音等都影響聽力的準確度。

韓語聽力難是不爭的事實，它不僅僅與聽力相關，還受到多種因素的影響。聽力水平是學生韓語整體實力的綜合反映。

要圓滿解決韓語聽力難題，需要做的事還很多很多。